

광주 예술가들, 금남로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다

김남주 시인, 박효선 연극연출가, 정세현 민중음악가 등...

장르는 달라도 자신만의 예술영역에서 광주정신의 가치를 울리게 추구했던 예술인들이다. 그들의 공통분모는 '광주'이며 '금남로'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닿아 있다.

광주의 심장 금남로는 역사적, 문화적 장소성을 넘어 5·18의 가치 즉 민주와 인권, 평화에 수렴된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은 금남로를 빼놓고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항쟁의 중심지였다.

'기억지도_ 금남로의 예술가들'

8월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김남주 등 6명 작품·아카이브 전시

명할 수 없을 만큼 항쟁의 중심지였다.

금남로의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김호균)이 기획전실에서 펼치는 '기억지도_ 금남로의 예술가들'(8월 31일까지)은 금남로의 역사적 순간들을 자신만의 언어와 음악, 그림, 조각 등으로 형상화한 작가들을 소개한다.

앞서 언급한 이들 외에도 전시실에서는 화가 강연균, 사진작가 나경택, 조각 설치작가 박정용 등의 작품과 아카이브도 만난다. 단체로는 엄혹했던 군사독재시절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있다.

김호균 관장은 "이번 '기억지도'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그날의 참상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작가들과 단체들의 활동을 다양한 자료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자료들에서는 당시 뜨거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예술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고수했던 예술인들의 고뇌와 송고한 의지 등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전시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예술가는 김남주 시인. 주요 시집은 물론 감옥에서 아내에게 쓴 편지, 옥필시 등은 여전히 그가 살아 있는 듯한 실존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특히 '시와 혁명', '사상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는 8월 25일까지 김남주 시인 등 6명의 예술가들의 삶과 아카이브를 전시하는 '기억지도_ 금남로의 예술가들'을 진행한다.

거처', '함께 가지 우리 이 길을', '김남주 詩集', '조국은 하나다' 등 시집은 시인은 가고 없지만 뜨거웠던 삶을 말없이 웅변하고 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침겨워선가/ 꼭두새벽부터 피어오르던 가벼운 안개도/ 아기봉에 잠들고 그대가 서 있다/ 무등산 상상봉/ 산은 무등산 내가 앉으면 만산이 따라 앉고/ 보라/ 산은 무등산 내가 일어하면 만파가 일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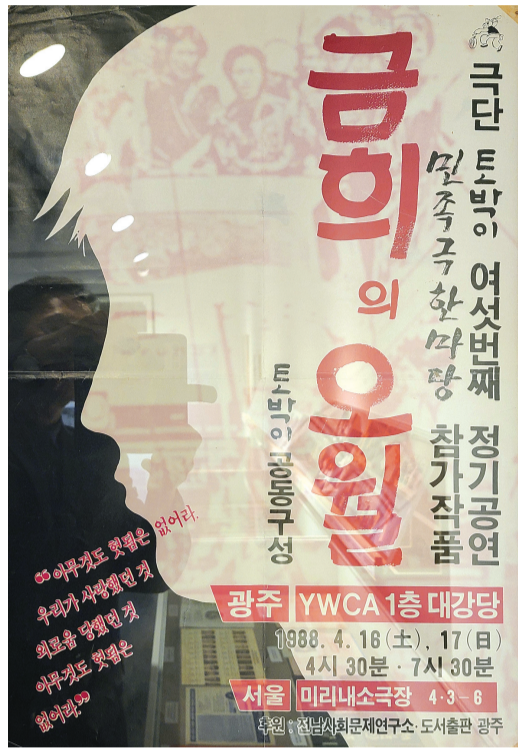
벽면에 걸린 '무등산을 위하여'라는 시를 나지막이 읽다 보면 마치 저편 어딘가에서 무등산이 다가와 말없이 포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시인이 바라봤던 당시의 무등산과 오늘의 무등산은 여전히 5월의 아픔을 꺼안고 그 자리에서 있다.

연균의 회화 작품과 1995년 통일미술제(안티비엔날레)에서 제작한 '하늘과 땅사이 4'의 관련 아카이브도 관람객을 맞는다. 강연균은 남도의 땅과 사람들을 모티브로 자연이 주는 감성과 풍물을 세세한 묘사와 깊이 있는 수채화로 그려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80년 암울한 시대 상황을 함축한 '뿌리 뽑힌 나무' 등을 볼 수 있다.

'금희의 오월', '모란꽃' 등을 연출했던 박효선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자리도 있다. 아카이브 자료는 마지막까지 예술의 열정을 불살랐던 고인의 삶을 보여준다. 그는 전남대 연극반과 탈춤반 후배들과 극회 '광대'를 창단하고 80년 5·18 당시 단원들과 '투사회보'를 제작 배포했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1988년 제작한 '금희의 오월' 공연 포스터는 강렬하면서도 압축적인 문구와 디자인으로 눈길을 잡아

끈다. 이밖에 저항의 순간들과 광주의 진실을 기록했던 나경택의 사진,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인쇄물과 영상을 제작해 5·18의 진실을 국내외에 알렸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자료 등도 전시되었다. 아울러 44년에 걸친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따라가며 역사적 순간들을 재구성한 박정용의 조각설치 작품도 만난다.

한편 홍윤리 학예연구사는 "광주 예술가들은 금남로에서 펼쳐진 역사의 순간들을 거거리에서 체감하고 자신의 예술작품에 섬세하게 기록했다"며 "문학, 미술, 연극, 음악, 사진, 영상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작품들은 당시 시민들의 정서를 대변해주며 예술문화운동을 이끈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8년 제작된 '금희의 오월' 포스터

광주 대표 패션디자이너 변지유, 대구서 광주 패션 알린다

오늘부터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특별전 참가

'패션은 시대의 문화를 탄생시킨다' 광주를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 변지유(변지유 부디그 대표·사진)씨가 올 여름 섬유도시 대구에서 광주패션의 우수성을 알린다.

변 씨는 대구광역시 주최하고 대구섬유박물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관하는 '2024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특별전에 초청을 받아 2일부터 8월4일까지 대구섬유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 특별전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는 대구섬유박물관 기획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친 1·2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파란만장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국 현대 패션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디자이너들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의미있는 자리다.

'1부:코리아, 패션을 만나다-현대패션의 시작'에서는 폐허 속에 피어난 한국패션문화의 조

명하는 장으로, 우리나라 디자이너의 산실이 된 '국제복장학원'의 전신인 '국제양장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 현대 패션 문화를 탄생시킨 최경자 등 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2부:디자이너, 패션을 만나다-현대패션의 성장'에서는 6·25전쟁 이후 1950-60년대 노라도, 앙드레김, 서수연, 한계석 등 복식유행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3부:우리는 패션을 입는다-현대패션의 발전'에서는 변씨를 비롯해 1980년대-현재까지 우리의 패션 문화를 이끌어 온 이상봉, 설윤형, 루비나 등 8명의 디자이너를 소개하고 우리의 패션 문화의 가능성을 조명해본다.

변씨는 파리 프레타 포르테, 밀라노 컬렉션 등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지역의 대표적인 패션디자이너다. 또한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



정하는 디자인 산업 발전 유공자상에 수상했으며 (사)금희여성회 장학회를 10년간 이끌면서 여성들의 인권과 장애우들을 위한 나눔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

또한 광주패션협회 회장, 제9회 코리아패션대상 수상,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행사,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특별기념전 국제미술의상전 등에 참가했다. 지난해에는 20여 년 전 팔과 함께 떠난 이탈리아 유학시절의 추억과 작업을 엮은 '린아(LIN·A) & 변지유 스타일 북'을 펴내기도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트럼페터 하민중이 선사하는 '황금빛 울림'

10일 광주예술의전당...소프라노 박희경 협연

트럼페트는 관현악 공연에서 '황금빛 울림'을 선사하는 금관악기다. 행진곡이나 파파르 등에 자주 활용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맡곤 한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뒤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트럼펫 석사과정'을 최초로 입학한 트럼페터 하민중(사진)이 광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0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트럼페터 하민중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성당 초청 연주회, 러시아 유스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으로 러시아 3개 도시 투어연주회 등을 펼쳐왔다. 광주, 목포, 대전, 과천시립교향악단 등에 객원 수석 및 단원 연주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전남대, 광주예중, ACC 시민오케스트라 등에 출강 중이다.

알비노니 '트럼펫 협주곡 B플랫 장조'를 비롯해 알렉산드로 스키타리 곡 '롬페 스프레파', 'Miotessoro per te moro' 등이 울려 퍼진다. '트럼펫과 피아노 협주곡 Op.18번 F단조'와 '타란텔라'는 오스카 보옌의 작품이다.

협연에 나서는 소프라노 박희경은 포파르테움 대학교 오페라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오페라



이 말한다. 피아니스트 정지연은 전남대 음악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공연 관계자는 "하민중은 브라스 앙상블 '브레싱'과 줄리브라스 사운드 단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2회 이상 독주회를 펼치는 등 기량을 쌓아온 트럼페터다"며 "국내·외에서 폭넓게 경험을 쌓아온 그의 '트럼펫 멜로디'가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협연에 나서는 소프라노 박희경은 포파르테움 대학교 오페라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오페라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인도네시아 가면극 인형 '와양'을 아시나요

ACC, 6000여 점 기증받아 화제...힌두교·불교 신화·전설 모티브

어느 나라나 특유의 가면극이 있다. 우리나라의 북청사자놀이, 고성오광대는 가면을 쓰고 행해지는 예술이다. 일본에는 농업의 신으로 간주되는 여우를 모티브로 한 가면극 '가구리'가 있으며 중국에는 영웅의 서사를 다룬 가면극 '나희'가 있다.

아시아 각국,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가면극은 활발하게 펼쳐진다. 전통 가면극이 사용되는 인형들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인도네시아 '와양' 6000여 점을 기증받아 화제다. 이번 기증식은 '무카무카 컬렉션' 개요 및 진행 경과 설명, 토타르 재단 존 맥그린 이사장 축사, ACC 이강현 전당장 감사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와양은 특정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돼왔으며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양과 틀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로 유명하다.

와양을 쓰고 진행되는 가면극은 인도네시아의 힌두교와 불교 신화, 전설 등을 모티브로 한다.

'무카무카 컬렉션'은 와양 수집가 그레고리 처칠(1947-2022)이 명명한 이름이다. '무카무카'라는 말은 '얼굴들'이라는 뜻으로, 미국 출신의 그레고리 처칠은 1976년부터 40여 년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통극에 쓰이는 '와양'. <ACC 제공>

에 거주하며 와양을 수집해 인도네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데 기여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인도네시아 가면극에 쓰이는 와양은 오랜 전통을 물론 독특한 외양과 스타일로 지역적인 특성을 드러낸다"며 "이번 수증받은 와양을 매개로 인도네시아의 다채로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 마한 이야기' 시즌2

17일부터 최태성 강사 등 초청강연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에 비해 '삼한'을 잘 알고 있는 이는 드물다. 삼한의 한 축인 '마한(馬韓)'은 큰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전남문화재단(문화재단)이 오는 17일부터 목포 영흥고를 시작으로 7월 10일까지 '어?! 마한 이야기' 시즌2 초청 강연회를 연다.

지난해 시즌 1에서 도내 6개 고등학교 총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이목을 끌었던 행사는, 올해 전남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5회 기획했다.

강연은 EBS 한국사 스타강사 '큰별쌤'으로 알려진 최태성(사진), 역사N교육연구소장 심용환이 맡을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tvN 별거벗은 한국사', 'KBS1 역사저널' 등에 출연하며 어려운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이번 강의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 전남 지역사인 '마한'의 역사를 쉽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클래식과 독립영화가 만나는 '씨네196'

9월까지 동구 미로센터...오늘 '서칭 포 슈가맨' 상영

매월 첫번째 목요일은 클래식과 독립영화를 한 자리에서 즐긴다.

5월부터 9월까지(첫번째 매주 목요일) 동구 미로센터(2층 미로 가든)에서 영화와 클래식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씨네196'이 펼쳐진다.

'씨네196'은 클래식과 영화의 결합을 매개로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모더레이터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영화감독이 참여한다.

먼저 2일에는 '서칭 포 슈가맨'이 관객을 찾아온다. 이어 6월5일 '안녕, 미누'를 비롯해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7월4일), '위대한 작은 농장'(8월1일), '이담'(9월5일) 등 5개의 독립영화가 관객을 맞는다. 상영 20분 전에는 매 영화에 어울리는 클래식 공연이 진행되며 상영 후에는 모더레이터 진모영 감독과의 '씨네마 토크쇼'도 예정돼 있다.

진모영 영화감독은 "이번에 상영예정인 5편의 독립영화는 일반 시민들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 영화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매월



'서칭 포 슈가맨' 스틸컷. <미로센터 제공>

첫번째 목요일 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영화잔치는 다양한 시각이 담긴 의미있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미로센터장은 "씨네196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토론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미로센터 알림사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